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어원크족

鄂温克族

Èwēnkèzú

편자 주연니
역자 김상녀



표령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金尚女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鄂温克族: 朝鲜文 / 周娟妮编; 金尚女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4. 5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794-2

I. ①鄂… II. ①周… ②金… III. ①鄂温克族—民
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2.3-4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4) 第 115473 号

鄂温克族

EWENKEZU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 110003

印 刷 者: 沈阳海世达印务有限公司

幅面尺寸: 180mm×240mm

印 张: 5

字 数: 40 千字

印 数: 1-1500

出版时间: 2014 年 5 月第 1 版

印刷时间: 2014 年 5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 张学林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李 京

标准书号: ISBN 978-7-5497-0794-2

定 价: 18.00 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 www.lnmzchs.com

淘宝网店: <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 족)

샬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 족)

왕해연(창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다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어원크족의 개황

어원크선조들은 레나강에서 왔다 /9

라이어얼건에 관한 전설 /11

제2장 어원크족의 고향

흑룡강과 대홍안령에 관한 전설 /13

서박산의 유래 /19

호영봉에 관한 전설 /21

제3장 어원크족의 일상생활

나웨이가 꿈을 잡다 /27

자작나무에 관한 이야기 /35

제4장 어원크족의 명절과 풍속습관

“오보제”의 유래 /43

화신절에 관한 전설 /49

제5장 어원크족의 신앙

“서워크”에 관한 전설 /55

제6장 어원크족의 민간이야기

해림찰에 관한 전설 /57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빠트얼쌍 /63

우허나이가 장가들다 /75

양의 꼬리로 입을 막은 이야기 /79

참고문헌



제1장 어원크족의 개황

어원크족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중의 하나이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어원크족의 인구는 도합 3.05만명으로서 주로 흑룡강성 닐하시(讷河市)와 내몽골자치구에 분포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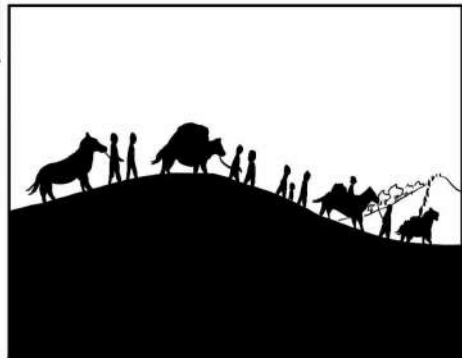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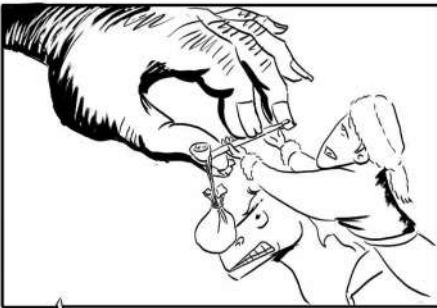
어원크족은 역사적으로 “삭룬(索伦)” “통구쓰(通古斯)” “야쿠트(雅库特)” 등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1957년에 “어원크”라는 자칭(自称)을 회복하였다. 그들은 주로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순록(驯鹿)을 사양하고 사용하는 민족으로서 역사의 흐름속에서 자기들의 독특한 민족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어원크족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이 아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어원크족의 민간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어원크선조들은 레나강에서 왔다

어원크족의 고향은 멀리 서쪽에 있는 레나강(勒拿河)연안이다. 옛날에 레나강은 아주 넓어서 새들도 날아건널수 없었다고 한다. 레나강의 서쪽에 “라마호(拉玛湖)”라는 호수(지금의 바이칼호)가 있었는데 그 주위에서 여덟갈래의 큰 강물이 굽이굽이 돌아 이 호수에 흘러들었다. 드넓은 호수에는련꽃이 가득 자라있어 호수가에서 멀리 바라보면 푸르른 련잎이 일망무제하게 펼쳐져 마치 하늘까지 닿은것 같았고 아침해는 마치 저쪽 호수가에서 솟아오르는듯하였다. 호수는 무성한 수초들로 뒤덮여있었고 호수주위의 산우에는 울창한 나무들로 우거져있었다. 어원크족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바로 라마호옆의 높은 산에서 넘어왔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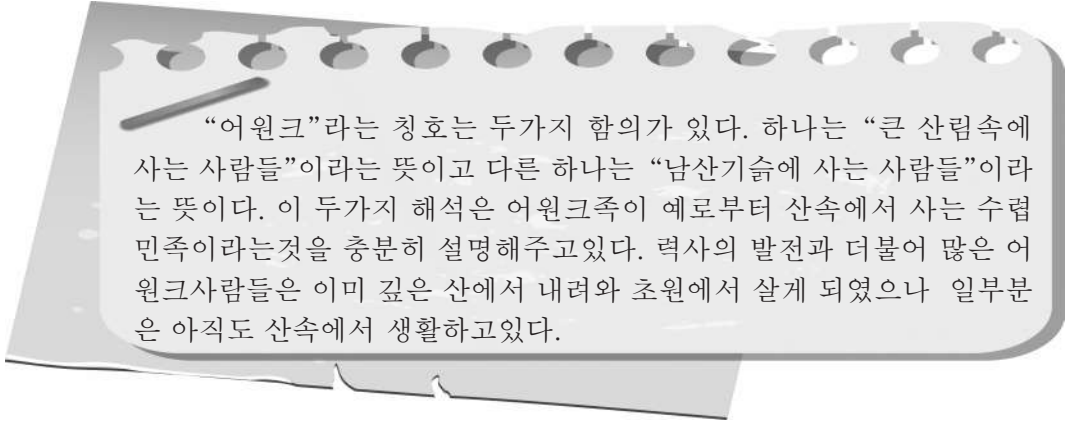
고고학과 인류학 연구의 성과는 어원크족의 선조들이 대체적으로 바이칼호주위와 그 동쪽지역 나아가서 흑룡강중류의 북쪽까지 분포되어있었다고 하였다. 일찍 기원전 2000년, 즉 동기와 석기가 병용되던 시대부터 어원크족의 선조들은 벌써 바이칼호의 외곽과 연안지역에서 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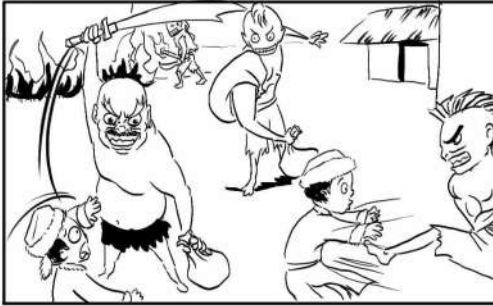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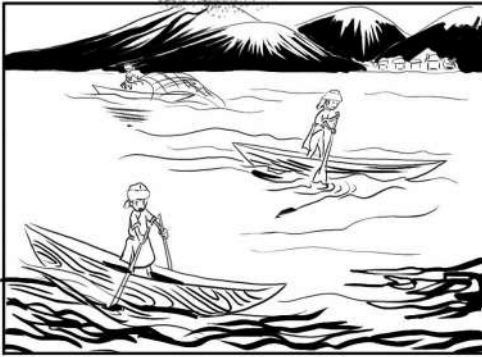
어원크족사람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는 라이머얼겐(萊莫爾根)의 전설은 그들이 어떻게 현재 거주하고있는 지역으로 이주해왔는지를 말해주고있다.

라이머얼겐에 관한 전설

아주 오래전에 라이머얼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흑룡강 발원지부근의 강남연안에 위치한 한 부락의 추장이였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이끼와 산나물을 먹고 살다가 후에는 사냥을 하여 짐승의 고기를 먹고 살았다. 강남의 짐승들이 점점 적어지자 어느날 라이머얼겐은 새로운 사냥터를 찾으려고 절따말을 타고 강을 건너갔다. 강건너편 산에서 그는 거대한 외눈박이말우에 거대한 외눈박이사람이 타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 거인은 라이머얼겐더러 자기한테 담배를 권하라고 명령하였다. 라이머얼겐이 담배대를 막 건네주려는 찰나 그가 타고있던 말이 놀라서 머리를 돌려 뒤로 뛰기 시작하였고 그 거인은 뒤에서 바싹 쫓았다. 라이머얼겐의 말은 눈 깜박할 사이에 강남에 되돌아왔다. 라이머얼겐은 강을 사이 두고 거인에게 소리쳤다. “당신 재간있으면 강을 건너와 한번 겨뤄봅시다!” 그런데 그 거인은 건너오지 않았다. 부락으로 돌아온 라이머얼겐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강건너편에서는 사냥하기 어렵겠소. 우린 다른곳으로 갑시다!” 그런데 부락의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라이머얼겐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오늘밤에 잠잘 때 머리를 서남쪽으로 두시오!”라고 말하였다. 이튿날, 그는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서남쪽으로 떠나갔다. 전하는데 의하면 라이머얼겐을 따라간 사람들은 후에 어원크족으로 되었고 당지에 남은 사람들은 오로첸족(鄂伦春族)으로 되었다고 한다.



“어원크”라는 칭호는 두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큰 산림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남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 두가지 해석은 어원크족이 예로부터 산속에서 사는 수렵민족이라는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있다. 력사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어원크사람들은 이미 깊은 산에서 내려와 초원에서 살게 되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산속에서 생활하고있다.



제2장 어원크족의 고향

현재 어원크족이 살고있는 우리 나라 동북변강에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대홍안령이 우뚝 솟아있는데 령북의 서쪽은 일망무제한 훌룬부이르(呼伦贝尔)대초원이고 초원의 동남쪽은 대홍안령의 계곡지대이다. 민간에는 지방풍물에 관한 전설이 많이 전해지고있다.

흑룡강과 대홍안령에 관한 전설

아름답고 풍요로운 라마호반에 어원크사람들이 산과 물을 끼고 살고있었다.

이곳에는 큰 강과 작은 시내물이 가로세로 얹히고 산과 언덕들이 서로 겹쳐져있어 물고기를 잡고 사냥할수 있는 더없이 좋은 고장이었다. 여기에는 분쟁이 없었고 강탈도 없고 사람들은 수확을 골고루 나누며 행복을 다같이 누리였다.

광활한 라마호엔 어원크사람들의 자작나무껍질배가 실북 나들듯이 분주히 오갔다. 수확의 계절이면 사람들은 배우에서 술마시고 노래하며 즐기곤 하였다. 호수속의 고기들도 덩달아 신나서 헤엄치며 노닐었다.

헌데 이와같이 좋은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원크사람들의 숙담에 “큰 화는 편안히 잠자는 베개밑에서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어느날, 이 평화로운 락원에 마왕 “거싸컨(葛沙肯)”이 악마무리를 이끌고 불시에 덮쳐들었다. 마귀들이 지나간 곳마다 시체가 사방에 널리고 붉은 피가 강을 이루었다. 그들은 또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 가져갈수 없는것들은 불을 질러 재더미로 만들었다. 어원크사람들의 행복한 락원은 삽시간에 인간지옥으로 변하고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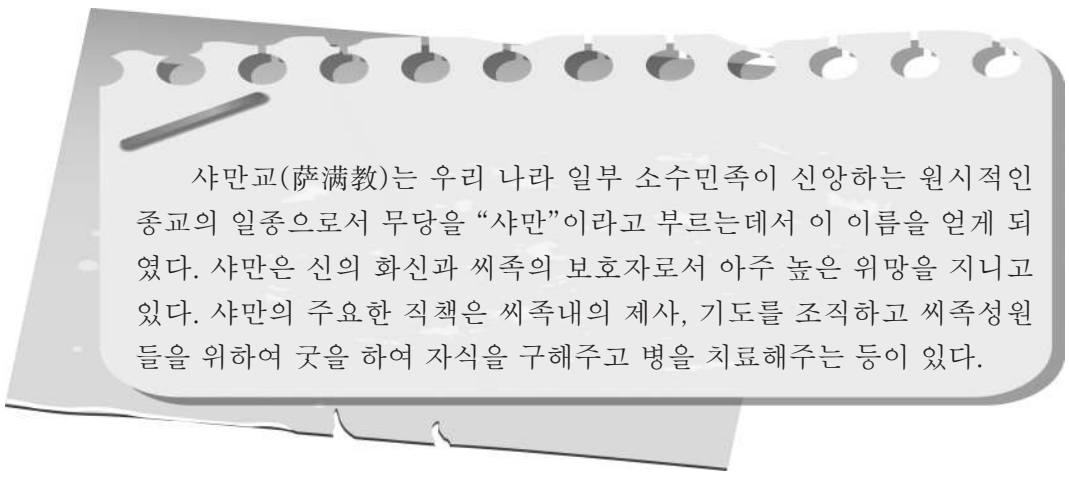
세세대대로 내려오면서 피땀을 흘려 개척한 아름다운 락원을 지키기 위하여 어원크남정들은 분연히 일떠나 활과 칼을 들고 거싸컨의 악마무리들과 몇날몇밤을 목숨걸고 싸웠다. 하지만 사람이 적은데다가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어 결국 이 용감한 사나이들은 패전하여 모두 목숨을 잃고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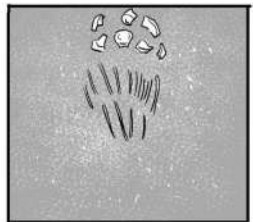
싸거디(萨格迪)를 위수로 하는 몇몇 백발로인이 이웃마을에 찾아가서 주샤만(祖萨满)의 도움을 청하였다. 주샤만은 법의를 입고 향을 올리고 신복을 두드려 여러 신령들을 불러왔다. 신령들은 주샤만에게 그들은 오직 고향을 떠나야만 영원한 평안을 얻을수 있고 오직 큰 산을 넘어야만 부강을 도모할수 있으며 흑룡보경(黑龙宝镜)이 있어야만 거싸컨을 막을수 있고 한쌍의 보배인 얼레빛과 참빛이 있어야만 거싸컨을 영원히 멀리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로인들은 모여앉아 의논한 끝에 모든 어원크사람들을 집중시켜 남쪽으로 피난가기로 결정하였다.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싸거디로인은 대대로 물려오던 가문의 보물인 흑룡보경과 한쌍인 얼레빛과 참빛을 내놓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마을사람들은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것을 이끌며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였다. 비록 모두가 기진맥진했으나 누구도 뒤떨어지려 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갔다. 그들이 겨우 개울을 하나 건넜는데 거싸컨의 악마들이 벌써 뒤쫓아왔다. 생사존망의 위급한 관두에 싸거디로인은 대대로 잘 간수해왔던 흑룡보경을 하늘로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울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거대한 흑룡이 나타나 장대같은 비를 억수로 퍼부어 악마들은 물에 빠진 생쥐모양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피난가는 사람들에게는 비 한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개울은 순식간에 도도한 큰 강으로 변했고 흑룡이 강물속에 들어가 거세찬 파도를 일으키니 뒤쫓던 많은 악마들이 파도에 휘말려들어가 고기밥신세가 되고말았다.

거싸컨은 강을 건널수 없게 되자 추격을 잠시 멈출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무고한 어원크사람들을 쉽게 놔줄 생각은 꼬물만치도 없어 배를 구해 타고 강을 건너 계속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샤만교(萨满教)는 우리 나라 일부 소수민족이 신앙하는 원시적인 종교의 일종으로서 무당을 “샤만”이라고 부르는데서 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샤만은 신의 화신과 씨족의 보호자로서 아주 높은 위망을 지니고 있다. 샤만의 주요한 직책은 씨족내의 제사, 기도를 조직하고 씨족성원들을 위하여 굿을 하여 자식을 구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는 등이 있다.



싸거디로인은 못사람들을 이끌고 대홍안령의 북쪽기슭에 겨우 당도하였다. 이때 거싸컨의 악마들이 가까이까지 쫓아와서 상황이 또 위급하게 되었다. 싸거디로인이 얼른 보배인 얼레빗을 꺼내서 하늘로 던지니 그 보배빔은 즉시로 천만개의 반짝이는 작은 점으로 변하더니 봄비마냥 산등성이에 떨어졌다. 눈 깜박할 사이에 산등성이에 는 하늘을 찌를듯한 큰 나무들이 얼레빗살마냥 빼곡이 들어서서 사람이 그사이를 지나기도 힘드니 덩치 큰 악마들은 더 말할나위도 없었다. 악마들은 칼을 휘둘러 나무를 찍고 겨우 통로를 열어 계속 추격해왔다. 그놈들이 대홍안령의 꼭대기까지 쫓아왔을 때 싸거디로인은 드디어 마지막 보물인 보배참빔을 하늘로 던졌다. 이 보배참빔이 변한 나무들은 더욱 뻥뻥하였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시덤불까지 엉키어 칼을 휘두를 틈서리도 없었다. 또한 이 나무들은 물기가 충족하여 불도 달리지 않았다. 악마들은 아무리해도 이 수림속을 뚫고 지나갈수가 없어 끝내 추격을 포기하고말았다.

원래 그 흑룡보경은 라마호의 부이르(贝尔)룡왕의 서자 흑룡의 화신이였다. 부이르룡왕은 어원크족의 어렵(打鱼)영웅을 둘째사위로 룡궁에 맞아들이려고 했었는데 그 어렵영웅은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여 응낙하지 않았다. 룡왕은 깊이 감동되어 자기의 서자인 흑룡을 보배거울로 변하게 하여 한쌍의 보배인 빔과 함께 그 어렵영웅에게 주었던것이다. 그 어렵영웅이 바로 싸거디로인의 선조였다. 어원크족사람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준것은 바로 이 보물들이였다!

사람들은 흑룡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강을 흑룡강이라고 불렀다. 후에 부이르룡왕은 또 라마호의 물고기들을 흑룡강에 나누어주어 흑룡이 관할하게 하였으며 어원크족사람들이 잡아먹을수 있도록 하였다.

그 보배인 얼레빗과 참빔은 삼림수목으로 변하여 산줄기를 일망무제한 림해로 만들었으며 무수한 날짐승과 들짐승을 불러왔다.

이때로부터 어원크족사람들은 이 천연적인 락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